

에폭시수지 수요 폭발적 증가

전자·페인트용 호조로 95년 4만8000톤 기록 ... 건축·토목용은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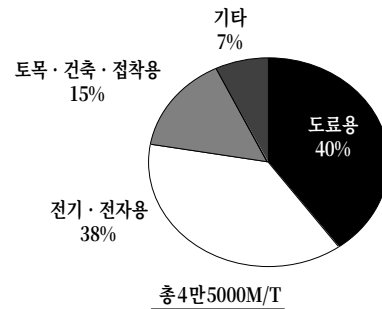
95년 에폭시수지 생산은 수요산업인 건축, 토목용 수요침체에도 불구하고 도료와 전기·전자분야의 수요가 급속히 신장함에 따라 큰폭으로 증가, 생산량을 증산하는 한편,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에폭시수지 수급추이

(단위 : M/T, %)

구 분	1994		
	수 량	수 량	증감률
생 산	42,500	52,000	22.4
수 내 수	35,000	45,000	28.6
수 출	21,000	25,000	19.0
계	56,000	70,000	25.0

에폭시수지 수요구성비 (1995)



특히, 국도화학은 95년10월 이리에 1만톤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데 이어 96년 시화공단에 5000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에폭시수지 내수는 94년 3만5000톤보다 28.6%신장한 4만5000톤을 기록, 생산량역시 94년 4만2500톤을 22.4% 웃도는 5만200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급속한 신장의 원인은 전기·전자업종에서 인쇄회로기판 PCB (Print Circuit Board)에 사용되는 페놀수지가 급속히 에폭시수지로 대체되어가고 있으며, PC모니터와 몸체, TV교체 확대에 따른 수요신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도료부문에서는 경기성장과 함께 조선용, 자동차용, 컨테이너용의 수요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역시 94년 2만1000톤에서 95년 2만5000톤으로 19.0% 성장하여 생산증가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94년이래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인 건축경기로 인하여 건축, 토목, 접착용 수요는 94년과 별 차이없이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생산능력은 국도화학 5만톤, 금호셀 1만톤, 제일시바가이 7000톤, LG화학 1만톤, 고려화학 5000톤으로 총 8만2000톤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도화학이 95년, 96년 2차례에 걸쳐 증설하였고 타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에폭시수지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절연, 내약품성, 접착성이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95년 에폭시수지의 주 수요처는 도료용으로 40%가량 사용되었으며, 전기·전자용 38%, 토목·건축·접착용 15%, 기타 7%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1996/1/22>

